

# ‘불법 체류자’를 중죄인으로 취급

최근 미국 LA등지에서 50만명이 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연일 미의회와 반이민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이 시작된 지 200년 가까이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특히 이민법제정 반대 시위 군중에는 우리 한국인들도 다수 있는데요. 미국 내 반이민법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미국 내 한인사회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시다.

## 1 이민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는 미국의 독립(1776)을 경계로 크게 갈라집니다. 그 이전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 근세의 지리적 발견시대에 이은 유럽인의 해외이주를 포함해 유럽 국가의 해외 영토 확대·정복에 따른 식민이었습니...

미국의 독립에 의해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은 나라로부터 나라로의 이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1920년경까지 19세기의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의 영향으로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 및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로 많은 이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인종차별, 국경문제, 인구, 식량문제 등을 이유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이민을 제한하기로 해 1924년 미국의 국가별 이민할당 제한을 기준으로 이민은 점차 줄어들게 됐습니다.

## 2 미국 반이민법 문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이민법은 제임스 센센브레너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공화당 주도 연방 하원을 통과한 법률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평가받는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5년 내 고국으로 돌아가 임시 근로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서 재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중죄인으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반 이민법 HR4437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태극기가 포함된 대형 미국기를 들고 지난 15일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贊 “불법 이민자들이 국가안보 위협 요소” 反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자 범치국가”

는 320km의 장벽을 설치하고, 미국-캐나다 국경에도 이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경범죄가 아닌 중죄인으로 취급해 구금 후 신속 추방하며, 고용주에게는 6년 이내에 피고용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형사처벌토록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한인 업주는 물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 봉사단체와 종교기관도 처벌을 받게 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민법 논란의 배경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미 국민의 안보불안감, 체감 경제 불안, 1천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층의 노동력 수요, 인구와 경제력면에서 급성장하는 남미계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을 둘러싸고 법과 질서를 내세워 불법 이민자들을 엄격히 단속·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공화당 보수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라고 보고 있고, 불법이민자들이 백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계, 가톨릭계, 상당수 공화당과 대부분의 민주당은 반이민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지금보다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 경제 현실과 미국 자체가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는 점 등을 들어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등 이념 원칙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취업을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3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 미치나?

현재 미국 거주 한인 200만여명 가운데 서류 미비자는 20%인 40여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가운데 미혼자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어 불법체류자를 미국에서 쫓아내는 이번 법안이 확정된다면 대규모 이산가족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인교포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센센브레너 법안에 따라 경우 불법체류자들을 10인 이상 고용한 업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한인의

류 및 봉제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나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돌보는 활동도 제한될 수 있어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거주 한인들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반이민법안 철폐’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4 절충점은 없을까?

지난 7일 연방상원에서 이민법 개혁 절충안이 통과에 실패하자 이민자 인권옹호 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 시위를 펼치는 등 논란이 과열되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원 법사위의 절충안은 매케인-케네디 수정안(불법체류자들이 1천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경우 임시고용허가증을 미 정부가 발급해 주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얻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의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적발됐을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시민권 획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민자 인권 옹호단체들이 상원의 휴회기간 동안 대규모 시위를 통해 계속 압력을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절충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美, 1875년부터 매년 부·범죄자 입국 금지... 이민제한 시작

1903년 102명 美 하와이 첫 이민  
100년만에 200만 경제집단 성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민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은 1902년 때부터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전후해 하와이의 사탕수수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이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를 외국에서 찾았다. 이에 아시아에서 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해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이주했다.

이후 하와이 농장주들은 조선 정부와 계속 접촉을 갖고 1902년 11월 고종이 노동 이민을 허락함에 따라 한인 노동자들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하와이 농장주들은 미국 달러로 1개월에 16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스터로 노동자들을 모집했다. 이 광고는 당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히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모집된 한인 이민단은 대부분 인천의 교회 신도들로 이들은 1902년 12월 22일 개리(Gaelic) 호를 타고 하와이를 향해 떠났다. 이후 1903년 남자 56, 여자 21, 어린이 25명으로 구성된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미국 공식 이민이다. 그 후 1905년까지 65차례에 걸쳐 7천 명이 넘는 조선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이들 한인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으나 한인 여성이 거의 없어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당시 동양인과 미국인의 결혼을 금지한 이민법 때문에 이주자들이 '사진 결혼' 기정 꾸러하는 금혼법이 60~70년대 일자리 찾아 독일로 갔을 때

때문에 현지인과도 결혼할 수 없었고, 결혼하려 한국을 다녀온다는 것은 거리와 비용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 결과 생겨난 것이 일명 '사진 결혼'이다. 사진을 증빙서류를 통해 주고받고, 이 사진을 들고 아가씨가 남자를 만나러 하와이로 건너오는 것. 이런 식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약 950명 정도의 '사진 신부'가 하와이로 건너왔다.

기록에 의하면 1910년에 시작된 사진 결혼으로 1924년까지 하와이에 951명, 미국 본토에 115명의 한인 사진 신부가 입국했다고 한다.

지난 2003년에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바 있다. 100년 동안 102명의 사탕수수 노동자는 현재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200만 경제집단으로 성장했다.

미국 하와이로의 이민 외에 독일로의 이민도 눈에 띈다. 독일로의 이민은 60~70년대에 이뤄졌는데 경제적이유로 떠나는 이민이 대부분이었다. 후진국형 이민으로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떠나는 경우였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당시 많은 수의 공부와 간호사 독일로 건너간 예는 유명하다.

한편 일부 역사학자들은 일제시대 만주나 간도 지방으로 이주해 가서 다시 러시아·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과 아직도 만주 간도지방에 남아 조선족이 된 사람들 모두를 이민의 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Advertisement for '시몬스침대' (Simons Bed) featuring various mattress models and promotional tex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시몬스침대' and '시몬스침대'.

Advertisement for '파티외식산업' (Party Catering Industry) featuring food images and text about catering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파티외식산업' and '파티외식산업'.